

경/영/전/략

사소함의 힘을 일깨우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작은 구멍

지난주 항공기내에서 한 대기업 임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해당 회사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오랜동안 존경 받던 회사의 이미지는 이미 훼손된 뒤였다. 이런 예는 해피밀 장난감(해피밀세트 구입시 제공하는 장난감)이 부족해서 무너진 '맥도날드'에서처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사소함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 시작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을 보며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더욱 마구잡이로 행동한다는 실험에서 나온 것이다. 부서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전부가 깨질 수 있으므로 작은 것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깨진 유리창이 없나 철저히 확인하고 그때그때 깨진 유리창을 찾아 고쳐야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에게 해당된다. 여러분의 깨진 유리창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혹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 ■ ■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는 항상 최선을 다해 플레이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늘 관중석에 자신의 플레이를 처음으로 직접 보는 팬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그 결과 56게임 연속 안타의 신화를 세울 수 있었다. 디마지오에게는 깨진 유리창이 없었다.

■ 김수진 수석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하는 건배사 : 주전자]



주 : 주인의식을 갖고
전 : 전문성을 갖추고
자 : 자신있게 일하자

금/용/외/환

일본 현지, 엔/달러 환율 현 수준 적정 평가

엔/달러 환율 100엔대 진입 카운트다운

지난 18일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엔/달러 환율의 100엔대 진입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금년말까지 120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엔고를 해소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엔저현상이 기대만큼의 기업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엔저의 부작용

영국의 Financial Times지(4.23)는 엔저의 기업경쟁력 제고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3월 LNG수입액은 6,210억엔으로 2011년 대지진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수입액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엔저로 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가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

일본 현지에서는 15년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일본의 경제상황과 엔저의 부작용을 들어 엔/달러 환율은 100엔 내외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스나리 우에노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엔화가치 하락이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 환율수준이 적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강태훈 수석연구원

[병원에서]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자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만실에 막 들어 가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막았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구역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여보시오. 내가 관계자요.”

경/제/일/반

1/4분기 실질 GDP 0.9% 성장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세

한국은행(4.25)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9%(전년동기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건설, 설비투자 및 수출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수준은 G2대비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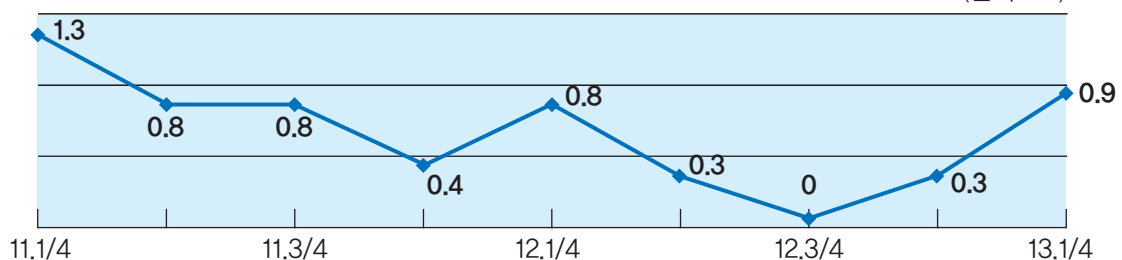
분기별 성장률 변화를 보면 전년 3/4분기(0.0%)를 저점으로 4/4분기 0.3%에 이어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 ■ ■

하지만 1/4분기 중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과 7.7% 성장이 발표된 중국 등 G2와 비교하면 국내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5%)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국내 GDP 성장률 추이(전분기 대비)

(단위 : %)



백충기 수석연구원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위기를 다른 어느 시대의 위기보다 가혹하게 느끼는 성향이 있다.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가진 자질의 우열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달려있다.

- '로마인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 금리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12	4/19	4/22	4/23	4/24
기준금리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CD(91일)	2.89	2.82	2.81	2.79	2.79	2.79	2.79	2.79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4	2.57	2.65	2.63	2.65	2.65	2.66
국고채(3년)	2.82	2.63	2.52	2.67	2.61	2.62	2.60	2.61
회사채(3년, AA-)	3.29	2.99	2.88	3.03	2.95	2.96	2.95	2.96
회사채(3년, BBB-)	8.80	8.58	8.49	8.62	8.57	8.58	8.56	8.56

● 주가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12	4/19	4/22	4/23	4/24
KOSPI	1,997.1	2,026.1	2,004.9	1,924.2	1,906.8	1,926.3	1,918.6	1,935.3
애플	13,104.1	14,054.5	14,578.5	14,865.1	14,547.5	14,567.2	14,719.5	14,676.3
니케이225	10,395.2	11,559.4	12,397.9	13,485.1	13,316.5	13,568.4	13,529.7	13,843.5
상하이종합	2,269.1	2,365.6	2,236.6	2,206.8	2,244.6	2,242.2	2,184.5	2,218.3

● 환율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12	4/19	4/22	4/23	4/24
원/달러	1,071.1	1,085.4	1,112.1	1,129.0	1,122.0	1,118.5	1,121.7	1,120.2
원/100엔	1,247.5	1,176.2	1,179.5	1,132.2	1,141.7	1,120.2	1,129.0	1,126.3
원/유로	1,416.3	1,425.8	1,425.2	1,480.2	1,464.7	1,461.0	1,465.4	1,456.7
원/위안	171.9	174.3	179.0	182.2	181.5	181.1	181.4	181.3

● 원자재

	2012년말	2013. 2월말	2013. 3월말	4/12	4/19	4/22	4/23	4/24
원유(WTI)(\$/배럴)	91.8	92.1	97.2	91.3	88.0	88.8	89.2	91.4
금(\$/온스)	1,687.9	1,577.7	1,594.8	1,501.0	1,395.3	1,421.0	1,408.6	1,423.4
구리(\$/톤)	7,915.0	7,828.0	7,582.5	7,510.0	6,975.0	6,875.5	6,811.0	6,935.5
알루미늄(\$/톤)	1,860.0	1,845.0	1,803.0	1,785.0	1,790.0	1,795.0	1,799.0	1,800.0